

충무공 이순신의 비범함·유비무환의 정신을 담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충무공 이순신

조성도 지음

국내 안팎으로 어지러운 시국이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론 분열과 불안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마치 자욱한 안개가 드리워진 것 같은 시계 제로의 형국이다.

또한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어떤 이들은 자칫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리더십'이다.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리더십이 아닌 어려운 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해안과 비전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우리 역사에서 나라를 위한 지략과 개혁, 투철한 책임감을 지녔던 인물을 꼽으려면 단연 충무공 이순신을 빼놓을 수 없다. 이순신이 남긴 빛나는 전공과 교훈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한마디로 이순신의 삶은 그 자체로 가르침이었다.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이 충무공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순신 연구자로 칭송을 받아왔던 고(故) 조성도 교수의 '충무공 이순신'이 발간됐다. 해군사관학교 교수 겸



박물관장을 역임한 저자는 '충무공 독본', '난중일기(편역)' 등 이순신 관련 책을 펴낸 바 있다. 생전의 그는 '노산 이은상을 잇는 이순신 연구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새롭게 개정증보판으로 나온 이번 저서는 (사)서울여해재단이 조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재출간했다. 이순신 연구에 큰 획을 그은

저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취지였다.

운동한 재단 이사장은 "이번 개정증보판은 고인의 집필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받되, 그동안 새롭게 밝혀진 연구내용을 반영했고 어휘나 단어 구사도 현대어에 맞게 보완했다"고 했다.

편집 과정에서 일러스트를 새로 그리거나 추가했다. 또한 도표, 사진도 교체해 지금의 감각에 맞게 체계를 적용했다. 특히 도표에서 행적도와 전적도 등은 이순신 일기 초고, 장계 초고를 토대로 작성했다. 한문 부분은 한글을 전용했지만 뜻을 파악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괄호에 한자를 삽입했다.

책은 '탄생과 수양'부터 '마지막 노랑해전'까지 모두 11장으로 구성돼 있다. 최초의 관직 생활, 전라 좌사 발령, 거북선의 모습, 빛나는 한산대첩, 통제사 임명, 백의종군, 통제사 재임명, 고금도와 조선 수군, 노랑해전과 장렬한 전사 등 충무공의 일대기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책에는 이순신의 비범함, 유비무환의 정신 등도 담고 있다. 특히 본성이 강직했던 그가 무과에 합격한 이후 스스로 지켜야 할 태도를 분명히 다짐했던 부분은 오늘의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분수를 지키고 공명정대를 생활신조로 삼고자 했던 정신은 본받을 만하다.



북돋도에서 오랑캐를 무찌르는 모습을 담은 '심경도' <출처 현충사>

조선 수군의 첫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을 앞두고 하달한 명령은 준엄하면서도 감동적이다. 이순신은 군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거운 행동을 취하라 勿令妄動靜重如山(물령망동정중여산)" 조선 수군은 옥포해전 승리를 기화로 왜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아들 면이 왜군의 칼날에 장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어질지 아니하신가"라고 탄식하는 마음을 일기에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조교수는 머리말에서 "그러므로 급박한 오늘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분에 대하여 막연하게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을 갖기에 앞서, 왜 그 분을 추앙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똑바로 체득하여 우리 스스로 실생활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가디언·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순신이 적의 총탄에 부상을 당했던 해전을 그린 '사천해전도' <출처 한산도 제승당>

맨드라미 붉은 마당을 맨발로

한혜영 지음

한혜영 시인은 지난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올해로 36년째를 맞았다. 1994년 '현대시학' (11월호)에 시가 추천됐으며 199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1989년에는 '아동문학연구'에 동시조로 등단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동주해외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인 동주 해외작가상은 모국어를 사랑하고 윤희주 시를 흠모하는 해외 시인들에게는 수상하고 싶은 상이다.

한혜영 시인이 최근 시집 '맨드라미 붉은 마당을 맨발로'를 펴냈다. 제2회 선정작가 수상집으로 발간된 시집은 제목부터 동화적이면서도 은유적이다. 시인이 추구하는 시 세계가 어떠한지 그려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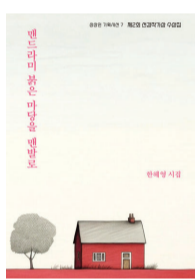
권은 평론가는 "뛰어난 관찰력, 유창한 은유와 비유의 구사, 낯설고 신선한 상상력, 정확한 언어 사용"은 그의 작품 세계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라고 평한다.

"나는 어디에서 온 빗방울입니까/ 나뭇잎 발코니/ 허공이 조금은 막막하여/ 주저앉아/ 울었던 기억이 나는 듯도 합니다만./ 어찌자고 아지도/ 마르지 않고 태양을 견딘 답니까/ 스스로를 깨트릴 수 없는/ 물방울을 위해/ 당신께서는 손가락을 빌려주십시오/ 닿는 순간 한 채의/ 눈물 누에에 갇혀 있던 날개가/ 폐허를 털고/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 '부탁'이라는 시는 시인의 시적 세계가 잘 형상화된 작품이다.

한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가시덤불 숲에는 해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며 "늪은 사슴은 길을 잃고 또 잃어버릴 뿐이었다"고 전했다. <상상인·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통령의 독서

신동호 지음

어전히 혼란스러운 나날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탄핵정국 속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실시간 깨닫고 있는 요즘이다.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 "파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중복 반국가세력", "척결", "처단"...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유튜브 음모론에 심취해 확정판형의 오류에 빠진 대통령의 언어는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대통령의 언어는 단순히 개인의 표현을 넘어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도구임을 알려주는 책 '대통령의 독서'가 출간됐다. 5년간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지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 작성을 보좌한 신동호 시인이 쓴 정치·독서 에세이다.

책은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 담화문, 기고문에 담긴 독서의 자취를 따라가며 어떤 책이 대통령의 생각의 씨앗이 되어 그의 말과 글로 탄생했는지,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지도자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의 토대가 되는지 경로를 살펴본다.

책을 주제로 하는 만큼 예사거리로 유명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이 다수 소개되며 특히 진영의 언어를 초월해 국민의 공감을 우선했다는 평을 듣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쓰기·말하기 노하우를 다채롭게 풀어냈다.

"책을 통해 인간은 실수, 실패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기회를 무수히 갖게 됩니다. 대통령의 독서는 과거의 교훈을 새기고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려보는 창입니다. 5000만 개개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겨레출판·2만2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창문 너머로

제인 구달 지음, 이민아 옮김

'제인 구달'은 침팬치와 동고동락하며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한 영국의 동물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침팬치 행동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며, 1960년 아프리카 보호구역(곰베)에서 10여년간 야생 침팬치에 대한 획기적 사실들을 발견해 냈다.

구달 박사로 인해 현대사회에는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대두됐으며, 침팬치에 대한 권리나 DNA 실증 연구가 진척됐다.

구달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창문 너머로'가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저자는 인간의 집에서 자란 침팬치 루시(1964-1987)가 찬장에서 유리잔을 깨내 진토닉을 만들던 장면, TV를 켜서 채널을 돌렸던 모습 등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데이비드 그레이버어드'라는 침팬치가 식물 줄기를 다듬어 흡에 찢러넣은 뒤 개미를 낚시하는 내용도 흥미롭다. 이는 인간만이 도구를 활용하는 유일한 영장류라는 편협한 생각을 깬 사건이다.

책에는 어린 수컷 침팬치 '고블린'이 17년 세월 동안 무리에서 우두머리로 자리잡는 과정도 실렸다. 무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발견한 야생 동물들의 습성은 문헌이나 사료로는 추적할 수 없는 생생한 '증언'으로 읽힌다.

"침팬지에 대한 이해가 다른 비인간 동물 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기를, 우리가 지구를 나누어 쓰고 있는 다른 종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자."

저자는 침팬치의 생존 투쟁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1960년대에는 탄자니아에 1만여 마리가 존재했지만, 1990년 무렵에는 개체수가 2500마리로 감소한 현실을 예로 든다. 나아가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질병연구의 실험용으로 희생됐던 현실을 통해 인간이 침팬치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을 강조한다. <사이언스북스·3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